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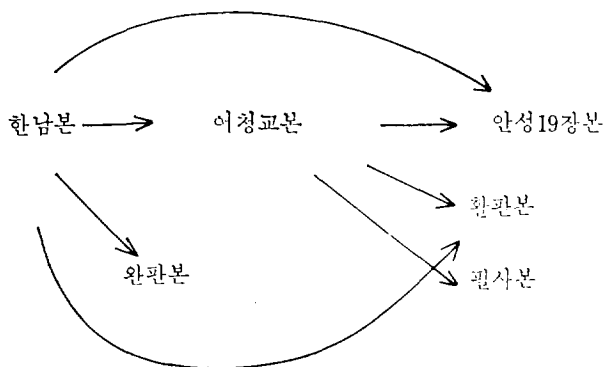
〈洪吉童傳〉異本新考

宋 晟 旭*

1. 緒 論

이 글은 〈洪吉童傳〉의 異本관계에 대한 再熟考로서 쓰여진다. 既實 〈홍길동전〉의 이본에 대해서는 거의 20년전 丁奎福교수에 의한 연구¹⁾에서 〈翰南本〉이 最古本 혹은 最善本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再考되지 않고 있으며 작품론 뿐만 아니라 이본들 사이의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이 논의에 바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복 교수의 윗 논의에서 〈京板 24장본〉인 〈한남본〉이 최고본으로 설정된 주된 이유는, 그것이 작자 許筠의 출생지인 서울에서 만들어진 판본이라는 점, 작품의 구성상 가장 무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綴字·表



* 석사과정

1) 丁奎福, 洪吉童傳異本攷一, 二, 국어국문학 48.51, 1970, 1971.

記法の 문제에 있어 보다 앞선 시기에 위치한다는 점 등에서였다. 참고로 여기에서 도출된 <홍길동전>의 이본관계를 제시하면 위와 같다.²⁾

그런데 이 논의에서는 홍길동전 이본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坊刻本임에도 불구하고 방각본 자체의 속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방각본은 원래가 판매·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방각본 소설의 경우, 그것은 하나의 문학작품이자 동시에 상품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게 된다. 따라서 방각본 소설의 생산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윤에 합당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 고안해야 했다. 특히 京板本의 경우에 <황운전>, <월봉기>, <사씨남정기> 등에서 分卷에 의한 이본의 출현과 본문의 변이현상, 그리고 <전우치전>에서 張數縮小에 의한 이본의 출현과 본문 변이현상이 보인다.³⁾ 이 사실은 “기존의 분권체제를 바꾸어 총판매수입금액을 높여서 이윤을 확보하던지 또는 생산단가를 줄여서 이윤을 확보”⁴⁾하려는 방각본 간행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이해되는 바, 방각본 소설은 당시 철저한 상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유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傍證이라 하겠다.

정규복 교수의 논의에서도 <한남본>이, 그 後代本으로 설정된 <漁靑橋本>이나 <安城 19 장본>에 비해 장수가 많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남본>은 판목의 교체가 보이며 그 후반부가 다른 판본에 비해 축약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방각본의 생리상 그것의 최고본 여부가 의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선 기존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판본들을 첨가·조사하여 <홍길동전>의 이본관계를 달리 설정하고자 한다.

한가지 미리 전제할 것은 이 글에서 표기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각본 소설의 출현시기는 일러야 18세기 초엽이 되는 만큼, 이미 당시는 ‘.’ ‘.’의 혼철, 구개음화, 된소리표기의 혼철 등 국어문법이 상당히 문란해져, 한 판본에서도 표기법의 혼동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판본은 金東旭編 <景印古小説板刻本全集> 所載(이하

2) 丁奎福, 위의 논문.

3) 李稔憲, 京板坊刻小説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國文研究, 12, 1987, <田禹治傳>에 대해서는, 方大秀, 田禹治傳 異本君의 작품구조 연구, 국문학 연구 87집, 서울대, 1988에서 상세하다.

4) 李稔憲, 위의 논문

전집으로 표기) 〈홍길동전〉의 이본 〈冶洞橋本〉 〈漁靑橋本〉 〈翰南本〉 〈宋洞橋本〉 〈安城 23 장본〉 〈安城 19 장본〉 〈完板本〉 등 7개 판본으로 한정한다.

2. 〈冶洞橋本〉 〈漁靑橋本〉 〈安城23장본〉 〈宋洞橋本〉의 관계

이들 4 판본 중 〈안성본〉만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경판본으로, 〈야동교본〉이 29 장 〈어청교본〉이 23 장 〈송동교본〉이 20 장으로 되어 있고, 行數는 〈야동교본〉이 각 면당 14 행이며 나머지 판본은 모두 15 행이다.

내용면에서는 4 판본 모두가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한남본〉과는 달리 김현충·요괴 등과의 싸움 즉 軍談的 要素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開眼拒否挿話가 들어 있고, 길동의 죽음이 白曰昇天으로 처리되어 있다. 특히 길동이 죽기 직전 ‘無常歌’를 부르는 것은 이들 판본의 독자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세상사를 생각하나 풀앗히 이슬갓도다
 빙년을 산다허나 이 또한 부운이라 귀
 천이 썩 잇스미여 다시 보기 어렵도다
 텃지정슈를 인력으로 못호리로다
 슬푸다 소년이 어저러니
 금일 빅발될줄 엇지 알리오
 아마도 안괴심과 적송즈를 좃츠세
 상니별흐미 가호도다(야동교본).⁵⁾

이 장면은 비록 표기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위의 4 판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며 〈완판본〉 및 〈한남본〉에는 없는 것이다.

2.1. 〈冶洞橋本〉과 〈漁靑橋本〉

여기에서는 일단 〈한남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삼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 〈야동교본〉의 본문 중 〈어청교본〉에서 누락되고 있는 곳을 살펴보자.

A1) 길동이 치비교왈 소인이 평성설운 바는(야동교본)⁶⁾

5) 전집五, 1017.

6) 전집五, 1004.

길동이 고향 소인이 평성의 설운 바는(어청교본)⁷⁾

A2) 품은 한이 집스온지라 창휘 세상의 처호미 남의 천디 바드미 불가호은
치라 쇼지 자연 괴운을 억제치 못호여(야동교본)⁸⁾

품은 한이 집스온지라 쇼지 자연 괴운을 억제치 못호여(어청교본)⁹⁾

A1)에서는 한 단어가 A2)에서는 거의 한 문장이 누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3) 잇튼날 공이 뒤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의 비범호를 닐코르며(야동교본)¹⁰⁾

잇튼날 공이 뒤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을 일카르며(어청교본)¹¹⁾

A4) 길동이 이를 당호미 더욱 설우물 이기지 못호나(야동교본)¹²⁾

길동이 더욱 설우물 니기지 못호나(어청교본)¹³⁾

A3)에서는 ‘비범호를’이 누락되어 길동의 어떠한 모습을 공이 일컫고 있는지가 모호하며 A4)에서는 ‘설운’ 이유가 모호하여 어절의 누락이 야기하는 의미전달의 모호함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많이 발견된다.

A5) 일시의 다라드니 홀로 당치 못호여 공중의 소소며(야동교본)¹⁴⁾

일시에 다라드니 길동이 공중의 소소며(어청교본)¹⁵⁾

A7) 왓 보천지하의 막비왕토요 솔토지민의 막티왕신이라 호나(야동교본)¹⁶⁾,

7) 전집Ⅲ, 423. 방점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다. 이하 비교되는 예문에서 모두 방점이 있는 곳은 변개가 일어나는 곳이다. 심한 변개의 경우는 방점을 생략한다.

8) 전집Ⅴ, 1004.

9) 전집Ⅲ, 423.

10) 전집Ⅴ, 1005.

11) 전집Ⅲ, 424.

12) 전집Ⅴ, 1005.

13) 전집Ⅲ, 424.

14) 전집Ⅴ, 1013.

15) 전집Ⅲ, 430.

16) 전집Ⅴ, 1009.

왈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하니(어청교본)¹⁷⁾

A8) 길동이 틱슈의 항복하는 냥을 보고 좌우를 명하여 그 민거슬 끝너(야동교본)¹⁸⁾

길동이 항복하물 보고 그 민거슬 끝느(어청교본)¹⁹⁾

이상의 경우와 같이 <어청교본>은 <야동교본>의 본문을 누락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청교본>이 <야동교본>의 본문을 축약하여 변개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B1) 이제 통몽을 어더시니 반다시 귀훈 츠식을 나흐리라(야동교본)²⁰⁾

이제 농몽을 어더시니 반다시 귀츠를 나흐리라(어청교본)²¹⁾

B2) 초난이 무네와 상즈로 흥여금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하미니(야동교본)²²⁾

초난이 무네와 상즈로 교흥하여 너를 죽이려 하미니(어청교본)²³⁾

B3) 이 연유로 상달하온 디 상이 소왈 길동은 신귀한 사람이라 체계 소급헌 거시라(야동교본)²⁴⁾

이 연유로 상달하온 디 상이 소왈 니 길동을 소급헌거시라(어청교본)²⁵⁾

B4) 혼가지로 처소의 도라가 상최를 보시머 엇더하니잇고(야동교본)²⁶⁾

합기 가기를 청하거늘(어청교본)²⁷⁾

B5) 산역을 시즉하되 석물법절이 국능의 갖잡게허라하고 체인 중 지모잇는 츠를 불러 큰비 흔척을 준비하되(야동교본)²⁸⁾

17) 전집三, 427.

18) 전집五, 1016.

19) 전집三, 432.

20) 전집五, 1003.

21) 전집三, 423.

22) 전집五, 1006.

23) 전집三, 425.

24) 전집五, 1012.

25) 전집三, 430.

26) 전집五, 1013.

27) 전집三, 430.

28) 전집五, 1014.

산역을 시작하되 석물법결이 국능의 비월나라 흥인을 불러 큰비 흔적을 준비하되(어청교본)²⁹⁾

위에서 보듯이 字數가 많은 어절을 간략한 단어 혹은 간략한 어절로 축약하고 있다. 이는 장수를 줄여 생산단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청교본>은 <야동교본>을 母本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규복 교수의 논의에서는 <어청교본>이 <한남본>을 모본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 세번째의 검증에서 실상과 부합하지 않음이 더욱 뚜렷해진다. 즉 <야동교본>이 <한남본>과는 다르면서 <어청교본>과는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C1) 길동의 일을 엇지 쳐치 하시느니 잇고(야동교본)³⁰⁾

길동의 일을 엇지 쳐지 하시느니 잇고(어청교본)³¹⁾

길동의 너스를 엇지쳐치 하시느니 잇가(한남본)³²⁾

C2) 위호미요 셋지는 문호를 보곤함미라 너의 계교디로(야동교본)

위호미요 셋지는 문호를 보곤함미라 너의 계교디로(어청교본)³⁴⁾

위호미요 셋지는 흥문을 보곤함미라 너의 계교디로(한남본)³⁵⁾

C3) 포장이 경신을 진정하여 치미러보니(야동교본)³⁶⁾

포장이 경신을 진정하여 치미러보니(어청교본)³⁷⁾

포장이 경신을 가다듬어 치미러보니(한남본)³⁸⁾

위의 비교는 작품의 전반부에서만 추출한 것으로 <어청교본>이 <한남본>이 아니라 <야동교본>을 모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29) 전집三, 431.

30) 전집五, 1005.

31) 전집三, 424.

32) 전집三, 413.

33) 전집五, 1006.

34) 전집三, 424.

35) 전집三, 413.

36) 전집五, 1009.

37) 전집三, 427.

38) 전집三,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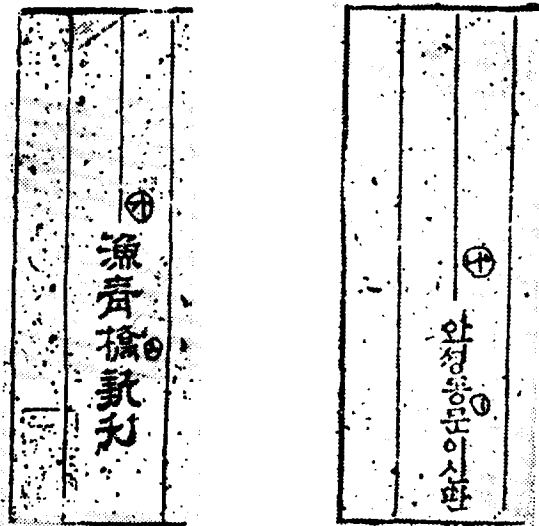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개안거부삽화, 백일승천, 무상가 등의 서술이 〈야동교본〉과 같이 존재한다.³⁹⁾

따라서 〈어청교본〉은 〈야동교본〉을 모본으로 하여 모본의 본문의 생략 및 축약 등을 통해 장수를 23장으로 줄여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겠다.

2.2. 〈漁靑橋本〉 〈宋洞橋本〉 〈安城 23 장본〉

먼저 〈어청교본〉과 〈안성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두 판본은 특이하게도 刻字體 및 각 면의 행구별이 동일하고 다만 끝부분의 出刊所名만 바뀌어져 있어, 동일한 판목으로 두 판본이 인각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이 두 판본 사이에는 아무래도 안성과 서울 사이에서 판목의 거래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에서 먼저 판목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서울에서



39) 다만 〈어청교본〉은 길동이 특재나 상녀를 죽이는 장면에서, 〈한남본〉이나 〈야동교본〉과는 달리 무녀까지 포함하여 모두 3명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먼저 판목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되는 것은 끝부분에 인각되어 있는 출간소명의 인각상태이다.

위 사진을 보면 ① 부분을 깎아 버리고 다시 ② 부분을 인각하였는 듯하다 만약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안성본>의 경우는 ㉞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㉜ 부분에서 다시 줄을 연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자료 중에는 이 두 판본중의 어느 한 판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송동교본>인데, 이 판본은 경판본이다. 또 <안성 19장본>은, 후술될 것이지만, <안성 23장본>이 아니라 <야동교본>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즉 보다 후대에 <안성 19장본>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안성 23장본>의 판목이 안성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19장본>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한다.

이렇게 보아 이 <어청교본>과 <안성 23장본>의 관계는 안성에서 서울에로의 판목거래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안성에서는 <23장본>이 없는 자리를 <19장본>이 메김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다음으로 <어청교본>과 <송동교본>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먼저 <어청교본>에서 <야동교본>의 본문을 누락했거나, 축약한 것 중 <송동교본>과 일치하는 곳을 살펴보자.

A1) 이제 농몽을 어더시니 반다시 귀츠를 나호리라(어청교본)⁴⁰⁾

이제 농몽을 어더스니 반드시 귀츠를 나호리라(송동교본)⁴¹⁾

위는 <야동교본>에서 ‘귀흐 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두 판본에서 모두 ‘귀즈’로 축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A2) 품은 혼이 김스온지라√쇼지 즈연 괴운을 여제치 못호여(어청교본)⁴²⁾

품은 혼이 김스온지라√쇼지 즈연 괴운을 여제치 못호여(송동교본)⁴³⁾

A3) 잇튼날 품이 너당의 드려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을√윌카르며(어청교본)⁴⁴⁾

40) 전집三, 423.

41) 전집五, 993.

42) 전집三, 423.

43) 전집五, 994.

44) 전집三, 424.

잇튼날 꿈이 너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을 V 일커르며(송동교본)⁴⁵⁾

A2)에서는 ‘장귀 세상의 처호미 남의 천티 바드미 불가흔온지라’가 그리고 A3)에서는 ‘길동의 비범호물’이 ‘길동을’로 두 판본에서 모두 누락, 변경되고 있다.

다음으로 〈어청교본〉의 것을 〈송동교본〉이 누락 혹은 축약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보자.

B1) 마슈이 는 싯흠을 도도니 현충이 니다라 싯호더니 마급슈합의 마슈이 거
 쯏 리하여 본진으로 도라오니 현충이 뒤홀 썸로논지라(어청교본)⁴⁶⁾

마슈이 싯흠을 도도니 현충이 뒤홀썸로논지라(송동교본)⁴⁷⁾

B2) 의병장 홍길동은 글월을 물도왕의게 전하느니(어청교본)⁴⁸⁾

의병장 홍길동은 물도왕의게 전하느니(송동교본)⁴⁹⁾

B3) 명이 진하니 인형형제 네를 갖츠와 선능의 합장하고 슈야안듬하더니 슈
 월이 지는 후(송동교본)⁵⁰⁾

명이 진하니 인형형제 네로셔 선능의 합장하고 슈월이 지는 후(송동교본)⁵¹⁾

B4) 등극 삼십년의 년기 칠순이라 여년이 부다함을 짐차하고 덕송츠의 츠최
 를 찾코져 하더니 일일은 왕이 후원 영낙년의 울는 이원풍악을 진츄하고 산천
 경기를 완상하며 노리를 지어 부르니 그 노리의 왈(어청교본)⁵²⁾

등극 삼십년의 년기 칠순이라 일일은 왕이 후원 영낙년의 이원풍악을 갖츠고
 노리를 지어 부르티(송동교본)⁵³⁾

윗 예문은, 〈어청교본〉과 〈야동교본〉에서는 大同小異한 부분이면서,
 〈송동교본〉에서는 상당 부분 누락된 부분이다. 그리고 2. 1. 에서 살핀 C)

45) 전집五, 994.

46) 전집三, 432.

47) 전집五, 1001.

48) 전집三, 432.

49) 전집五, 1001.

50) 전집三, 433.

51) 전집五, 1002.

52) 전집三, 433~434.

53) 전집五, 1002.

의 예문, 즉 <야동교본>과 <한남본>에서는 차이가 나면서 <야동교본>과 <어청교본>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송동교본>의 경우에도 그대로 확인되며, <어청교본>에서만 독특한, 길동이 무녀·상자·특재 등 3名을 죽이는 것 또한 <송동교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송동교본>은 <어청교본>을 모본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冶洞橋本> <翰南本> <安城 19장본>의 관계

<한남본>은 그동안 대부분의 <홍길동전> 연구에서 텍스트로 삼은 판본으로 익히 잘 알려진 판본이다. 이 판본은 경판본으로 24장으로 되어 있으며 행수는 20장까지는 14행으로, 21장에서부터는 15행으로 되어 있다. 또 20장을 경계로 하여 각자체의 변화도 보이고 있어 20장과 21장 사이에서부터 판목의 변화를 보임이 확인된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20장까지는 다른 이본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1장에서부터는 군담적 요소들이⁵⁴⁾ 짐하게 축약되어 있으며, 길동의 죽음이 백일승천이 아니라 '홀연 득병하여 봉헌니'로만 처리되어 있고 무상가의 삽입도 없다. 그 말미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치국 삼십년의 홀연 득병하여 봉헌니 쉬 칠십이세라 왕비 이어 봉헌미 선능의 안당할 후 세지 즉위하여 디기로 계계승승하여 태평으로 누리더라(한남본)⁵⁴⁾

위에서 보듯이 길동의 죽음 장면에 天上의 개입이 없으며, 다른 이본에서는 보이는 후손들의 치적에 대한 설명도 없는 것이다.

<안성 19장본>은 그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판본인데⁵⁵⁾ 길동의 울도국 수립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이 판본은 14장까지는 행수가 14행으로 되어 있으며, 15장부터는 2행이나 더 늘어나 16행으로 되어 있다. 또 각자체 뿐만 아니라 魚尾까지 변화되고 있어 <한남본>과 마찬가지로 판목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54) 전집3, 411.

55) 이 판본에 대해서는 李鉉國, <洪吉童傳>에 있어서 울도국의 位相과 性格, 文學과 言語, 8집, 文學과 言語研究會, 1987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3. 1. 〈冶洞橋本〉과 〈翰南本〉의 비교

〈한남본〉이 판목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야동교본〉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한남본〉의 20장과 〈야동교본〉의 18장 전엽의 12행까지를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3. 1. 1. 〈한남본〉 20 장까지와 〈야동교본〉 18 장 전엽 12 행까지의 비교

먼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축약이나 누락이 아닌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 니눔을 춤치 못호오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요(야동교본)⁵⁶⁾

이눔을 춤아 업시치 못호오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요(한남본)⁵⁷⁾

A2) 무슈훈 황건역시 좌우의 비뻬호(야동교본)⁵⁸⁾

무슈훈 황건역시 좌우의 나열호(한남본)⁵⁹⁾

A3) 길동이 밤의 와 슬피 하직을 호호니 고히 녀여더니(야동교본)⁶⁰⁾

길동이 밤의 와 슬피 하직호를 가장 고히 녀여더니(한남본)⁶¹⁾

A4) 팔도의 힘관허샤 길동을 줌아드리라 호시되(야동교본)⁶²⁾

팔도의 힘관호샤 길동을 줌오라 호시되(한남본)⁶³⁾

이밖에 본고 2.1에서 인용된 예문 중 (1), (2), (3)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야동교본〉 14장 전엽 3행과 6행에 각각 나오는 ‘종적’ ‘하리지틱’이란 어휘가 〈한남본〉 15장 후엽 9행과 13행에서는 각각 ‘존망’ ‘즈비지틱’으로 되어 있다(〈어청교본〉 〈송동교본〉에서는 〈야동교본〉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字數上으로는 거의 변동

56) 전집五, 1009.

57) 전집三, 417.

58) 전집五, 1009.

59) 전집三, 417.

60) 전집五, 1007.

61) 전집三, 414.

62) 전집五, 1009.

63) 전집三, 418.

이 없이 어휘나 어절이 조금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 두 판본 사이의 선후 문제를 가능하기 힘들게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남본>의 본문이 <야동교본>에서 누락 혹은 축약되고 있는 곳을 살펴보자.

B1) 이제 십년을 지너면 도선을 써나 가을 곳이 (한남본)⁶⁴⁾

이제 십년을 지너면 써나 가을 곳이 (야동교본)⁶⁵⁾

B2) 철삭이 큰히지고 함께 써여져 맞치 미암이 희물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한남본)⁶⁶⁾

철삭이 큰히지고 함께 써여져 공중으로 오르며 (야동교본)⁶⁷⁾

B3) 눅흔 초현을 헛거롭게 눅히 타고 (한남본)⁶⁸⁾

눅흔 초현을 타고 (야동교본)⁶⁹⁾

B4) 관군이 그 절 중이 가르치는 쥬를 알고 (한남본)⁷⁰⁾

관군이 그 절 중이 가르치^어 (야동교본)⁷¹⁾

B5) 도르혀 병조판셔 계슈^하시^문 불가 스문어^인국이^로소이다 (한남본)⁷²⁾

도르혀 병조판셔 계슈^하시^문 불가^하여^이다 (야동교본)⁷³⁾

이 중에서 B4) B5)의 경우는 누락이 아니라 축약, 변경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들을 보면 일단 <야동교본>이 <한남본>을 모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이본들은 <야동교본>의 것과 일치하며, 이 이후의 부분에서는 이와는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4) 전집 三, 419.

65) 전집 五, 1011.

66) 전집 三, 420.

67) 전집 五, 1011.

68) 전집 三, 420.

69) 전집 五, 1011.

70) 전집 三, 415.

71) 전집 五, 1007.

72) 전집 三, 420.

73) 전집 五, 1011.

3. 1. 2. 〈翰南本〉 21 장부터와 〈冶洞橋本〉 18 장 전엽 13 행 부터의 비교

A1) 할갓 천비 소심이라 문파를 호오나 옥당의 참내치 못함을 거시오 무과를 호오나 선천의 막히울리니 이러무로 마음을 정치 못함과 팔방으로 오유함과(야동교본)⁷⁴⁾

천비 소심이라 문을 호오나 옥당의 막히움고 무로 선천에 막힐지라 이러무로 스방의 오유함과(한남본)⁷⁵⁾

A2)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불너 왈 너 망당산의 드러가 살촉의 바를 약을 어더울거시니 여등은 오스이 익구를 잘 지히라호고 즉일 발선하여 망당산으로 향할시 슈일만의 낙천속히 니르러는 그곳의 만석군 부지잇스니 성명은 빅용이라(야동교본)⁷⁶⁾

일일은 길동이 살촉의 바를 낚을 어드려 망당산으로 향하더니 낙천속의 이르러는 그곳의 부주 빅용이란 스롭이 이스니(한남본)⁷⁷⁾

A3) 부공이 심시의 티양 너를 생각호시고 님충의 유연이 간결호시고 너를 위호여 눈을 감치 못호노라 호시니 엇지 인지의 흠아 견디리호(야동교본)⁷⁸⁾

부공이 심시의 유연이 간결호시미 엇지 인지의 도리리호(한남본)⁷⁹⁾

A4) 군법을 연습호니 이곳은 본디 그윽호 곳이라 알 이없고 또한 가산이 부요호지라(야동교본)⁸⁰⁾

군법을 연습호니 병경양족호더라(한남본)⁸¹⁾

이밖에도 〈야동교본〉의 본문이 〈한남본〉에서 누락 혹은 축약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간 다른 판본과의 의미상의 비교연구에서 문제삼은 개안거부삽화, 길동의 죽음장면 등은 작품 자체의 구조에

74) 전집五, 1012.

75) 전집三, 421.

76) 전집五, 1012.

77) 전집三, 421.

78) 전집五, 1014.

79) 전집三, 422.

80) 전집五, 1012.

81) 전집三, 421.

대한 문제인만큼 차치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문맥상의 어절번이 문제이기
에 주목되는 것이다. 즉 앞부분의 비교에서는 <한남본>이 선대에 위
치하는 것 같고 뒷부분의 비교에서는 <야동교본>이 선대에 위치하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앞부분은 <한남본>이 선
대에 위치하고, 뒷부분은 <야동교본>이 선대에 위치하여 <한남본>이 뒷
부분만을 판목교체와 동시에 번개하고 있을 경우, 둘째 <한남본>의 뒷
부분이 원래적 모습인데 후대에서 <야동교본>처럼 번개되었을 경우이
다. 그런데 <야동교본> 및 다른 판본이 모두 <한남본>과는 상이하다.
만약 위의 가능성 중 두번째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다른 판본 중에서 그
흔적이 보여야 할 것이다. 또 <홍길동전> 이본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문의 누락 및 축약은 대부분 후반부에서 일어나며, 방각본의 생리상 축
약의 경우는 아무래도 부연된 경우보다 후대에 위치한다. 특히 <안성19
장본>의 경우는 울도국 수립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있으며, 경판 <전우
치전>의 경우는 <37장본>에서 <22장본>으로 다시 <17장본>으로 축약·
번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⁸²⁾

따라서 <한남본>의 후반부는 후대에 다시 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판목이 교체되기 이전의 20장까지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앞
으로 따져볼 문제이다.

3. 2. <冶洞橋本>과 <安城 19장본>의 비교

앞서 지적했듯이 <안성 19장본>은 길동의 울도국 수립 부분이 삭제되
어 있다.

각설 홍길동이 부친 산소를 제쳐히 댈시고 조석 제전을 지성으로 지니니 제
인이 탄복 아니리 업더라 세월이 여류호여 습상을 마치고 무예를 연습하며 농
업에 힘쓰니 슈년 지니미 병정 양족호여 뉘 알니 업더라(안성본)⁸³⁾

이 부분이 판본의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 삭제임은 첫째, 윗 인용의
이하부분이 여백이라는 점 둘째, 다른 판본에서는 '뉘 알니 없더라'가

82) 方大秀, 위의 논문.

83) 전집3, 444.

없고, 방점친 ‘홍길동’이 ‘길동’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이 판본에서 14장까지는 〈야동교본〉과 각자체 및 자행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야동교본〉의 판목을 차용하여 인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그 이하는 어미까지도 화문어미에서 上黑어미로 바뀌고 있어 보다 후대본임을 알 수 있다.⁸⁴⁾

내용면에서는 울도국 부분의 삭제 이외에 길동의 병조판서제수요구대목이 빠져있고, 〈한남본〉과 같이 개안거부삽화가 빠져있다. 그러나 〈한남본〉과는 달리 군담적 부분은 별달리 축약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판본의 14장 이하 부분이 어느 판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A1) 발서 안장할턱일가지 호여 산역을 임의 시작호여쓰오니(야동교본)⁸⁵⁾

발서 안장할턱일가지 호여 산역을 시작호엿스오니(안성본)⁸⁶⁾

발서 산역을 시작호옴고 안장턱일을 정호엿스오니(어청교본)⁸⁷⁾

A2) 일시의 다라드니 길동이 홀노 당치 못하여 공중의 소소며(야동교본)⁸⁸⁾

일시의 다라드니 길동이 홀로 당치 못하여 공중의 소소며(안성본)⁸⁹⁾

일시의 다라드니 길동이 공중의 소소며(어청교본)⁹⁰⁾

A3) 혼가지로 처소의 도라가 상최를 보시미 엇더호니잇고 길동이 이말을 듯고 헤오디(야동교본)⁹¹⁾

혼가지로 처소의 도라가 상최를 보시미 엇더호노 길동이 헤오디(안성본)⁹²⁾

합기가를 청호거늘 길동이 이말을 듯고 헤오디(어청교본)⁹³⁾

84) 상흑어미는 純祖 때부터 사용한 어미이다.

85) 전집五, 1015.

86) 전집三, 444.

87) 전집三, 431.

88) 전집五, 1013.

89) 전집三, 443.

90) 전집三, 430.

91) 전집五, 1013.

92) 전집三, 443.

93) 전집三, 430.

이 중에서 A1)은 <한남본>에 없는 대목이며, A2)는 ‘일시의 드러들거
 늘 길동이 신통을 니여’로 처리되어, 인용된 A2) 이하의 대목들이 단
 두 어절로 축약되어 있다(<야동교본> <어청교본>에는 이 부분이 3행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안성본>에는 2행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한남
 본>에서의 축약은 A3)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A1) A2) A3)
 에서 보듯이 <어청교본>에서는 <야동교본>에 비해 누락 혹은 축약되어
 있는 곳이 <안성본>에서는 <야동교본>과 같이 인자되어 있으며, 다만
 A3)의 경우 ‘이말을 듣고’가 <안성본>에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안성 19장본>은 14장까지는 <야동교본>의 판목을 차
 용하였고 그 이하는 <야동교본>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完板本>

<완판본 홍길동전>은 36장본으로 각 면당 행수는 15행이며, 각자체
 는 완판본 특유의 서민서체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은 현존하는 방각본
 <홍길동전> 이본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독특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판본이다.

우선 작품의 첫대목을 살펴보자.

조선국 세종대왕 즉위 십오년이 흥회문 밧거 혼 지상이 잇스리 성은 홍이요
 명은 문이니 위인이 청염강직하며 덩망이 거록하니 당세의 영웅이라 일직 용문
 의 올라 벼살이 한림의 처하였더니 명망이 도경의 옷뚝디리 전호 그 덩망을 승
 이너괴스 벼살을 도도와 이 조판서로 좌오경을 하이시니 승상이 국은을 감동호
 야 갈충보국호니 스방의 일이 업고 도적이 업스리 시화연봉하여 나라이 락명호
 더라(완판본)⁹⁴⁾

화설 조선국 세종도시절의 혼 지상이 이시니 성은 홍이요 명은 뫼라 더디 명
 문거족으로 쇼년 등과하여 벼살이 니조판서의 니르미 불망이 도야의 옷뚝이오
 흥효 결비호기로 일홈이 일국의 진동호더라(야동교본)⁹⁵⁾

다른 판본에서는 <야동교본>과 같이 첫대목에서 길동의 家系에 대한 설

94) 전집三, 457.

95) 전집五, 1003.

명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완판본〉에서는 흥모의 국가공적이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길동에 대한 태몽도 〈완판본〉에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에서 보이는 태몽부분처럼 화려하면서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일일은 승상 난간의 비겨 잠근 조의더니 혼풍이 길을 인도하여 혼고되 다다르니 청산은 암암하고 녹슈난 양양흔의 세류천만가지 녹음이 파스하고 황금갓튼 외소리난 춘풍을 회통하여 낭뉴간의 왕니하며 기화요초 만발흔디 청학빅학이며 비취공작이 춘광을 자랑하거날 승상이 경물을 귀경하며 점점 드러가니 만장결벽은 은하날의 다투고 구뿔구뿔 벽계슈난 골골이 폭포되어 오운이 어러엿난디 길이 끈쳐 갈바를 모로더니 문득 청용이 물결을 헤치고 머리를 드러고 함흔니 산학이 문혀지난듯 하더니 그 용이 입을 버리고 귀운을 토하여 승상의 입으로 드러보거날 세다르니 평성디몽이라(완판본)⁹⁶⁾

선시의 공이 길동을 나흔 썩의 일몽을 어드니 뇌정벽녀이 진동하며 청용이 슈염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세다르니 일장춘몽이라(야동교본)⁹⁷⁾

우선 이들 첫대목만으로도 〈완판본〉이 전혀 별개의 이본임을 짐작하게 된다. 즉 다른 이본의 본문 누락이나 어절축약으로써가 아니라 그 서술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제시된 예문 외에도 〈완판본〉에서는 다른 판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가령 함경관영을 습격하는 목적이 다른 판본에는 ‘준민고척하는 권리’를 없애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人君을 보좌하기 위한 병법의 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말미 부분에서 대부인 유씨의 죽음이 다른 판본에서는 길동의 生時에 이루어지나, 〈완판본〉에서는 길동의 死後로 되어 있다. 또 길동이 죽기 직전에 〈한남본〉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서는 무상가를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노래가 삽입된다.

칼을 잡고 우슈의 비겨서니 남경이 이뻏만니노 디봉이 나라느니 부요풍이 이느도드 춤추는 소리바름을 쓰라 표표하미여 우이동편과 미복서편이로다 풍진을

96) 전집三, 457.

97) 전집五, 1003.

전집三, 474.

쓰러 바리고 티평을 일습으니 경운이 이러나고 경성이 빗켜이는 또드 밍장이
스방을 직케엇스미어 도적이 지경을 엿보리 업또드(완판본)

현세에서 이룩한 길동 자신의 치적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과 동시에 꽤
활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위에서 엿볼 수 있어 앞의 2장에서 인용한 무
상가와와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완판본>에서는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세부적이다. 길동
이 해인사를 약탈하고 나서 조정에서 문초받을 때의 僧徒에 대한 혹평
장면, 길동의 병조판서제수요구에 대한 조정신하들의 토론장면 등 사건
의 묘사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 스연을 묘당으셔 의논홀시 혹조난 제의 원을 푸러쥬워 비성의 마음을 안
돈홀조하고 혹조난 왈 제 무도불충홀 도적으로 나라의 척춘지공은 시로이 만민
을 소동케하고 성상의 근심을 쇠치는 놈을 엿지 일국티스마를 주리요(완판본)⁹⁸⁾

정규복 교수의 논의에서는, <완판본>에서 길동이 환빈당 피수가 되는
조건으로 초부석을 들 것과 해인사를 약탈할 것을 약속했었는데, 초부
석만 들고서도 피수가 되었다는 사실, 대부인 유씨가 길동의 사후에 죽
는다는 사실 등을 들면서, 이는 <완판본> 작자의 무식에서 오는 소치라
고 하였으며 나아가 <완판본>을 <한남본>의 傍系로 보았는데⁹⁹⁾ 이 견해
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완판본>은, <경판본>이나 <안성
본>이 언어·조사가 비교적 품이 높고 짜임새도 보다 정리되어 합리성
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구어적이며 열거나 반복이 많고 짜임새가 어성
겨서 내용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⁰⁾ 따라서 <완
판 홍길동전>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모습도 결국은 <완판본>자체의 속
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본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완판본> 담당층의 창조적 의지로 이해된다. <완판본>의
문체가 보다 구어체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증을 더욱
굳혀준다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완판 홍길동전>은 <한남본>의 방계가 아니라 별개의

98) 전집3, 468.

99) 丁奎福, 위의 논문.

100)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序說, 世宗文化社, 1986, p. 227.

이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홍길동전〉 이본의상 관관계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홍길동전〉의 이본관계가 기존에 이루어진 것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어청교본〉은 〈야동교본〉을 모본으로 하여 어절의 누락 혹은 축약을 통해 약간의 변개를 보이면서, 장수를 29장에서 23장으로 줄이고 있었으며, 〈송동교본〉은 이미 〈야동교본〉을 모본으로 삼은 〈어청교본〉을 모본으로 삼아 다시 장수를 20장으로 줄이고 있었다. 〈안성 23장본〉의 경우는 〈어청교본〉과 판목 자체가 동일하면서, 끝부분의 출간소명만을 다시 인각하고 있어, 서울과 안성 사이에서 판목의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그리고 출간소명을 인각하는 기술문제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안성에서 서울로의 판목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졌다.

한편 안성에서는 〈23장본〉이 없는 자리에 〈19장본〉을 다시 인각하여 자리매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19장본〉은 14장까지가 〈야동교본〉 판목과 동일하였고, 15장부터는 〈야동교본〉을 모본으로 삼아 인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최고본으로 인정되어 온 〈한남본〉의 경우는 20장을 경계로 하여 판목의 교체됨을 보였는데, 이 판본이 다른 판본에 비해 심한 축약과 변개를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 판목의 교체부분에서 부터이다. 만약 이 〈한남본〉의 후반부를 〈홍길동전〉의 원래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반부는 후대에 다시 개작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현존판본 중 〈한남본〉 후반부의 흔적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야동교본〉 이하 〈어청교본〉 〈안성본〉 등에서 그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야동교본〉을 다른 판본들이 모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각본의 생리상 축약은 후대본에서 일어나는 만큼 〈한남본〉을 최고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남본〉 20장까지의 부분은 다른 판본보다 더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의 출처가 문제된다 하겠다.

〈완판본〉의 경우는 그 문체와 구성의 독자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별개의 독자적 판본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완판본>을 제외한다면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 장수가 축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방각본 자체의 상업적 속성술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본들의 관계를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야동교본> 및 <어청교본> <송동교본> <안성 23 장본>은 개안거부삼화가 들어 있으며 길동의 죽음이 백일승천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 죽음 직전에 무상가가 들어 있다. 그리고 군담적 부분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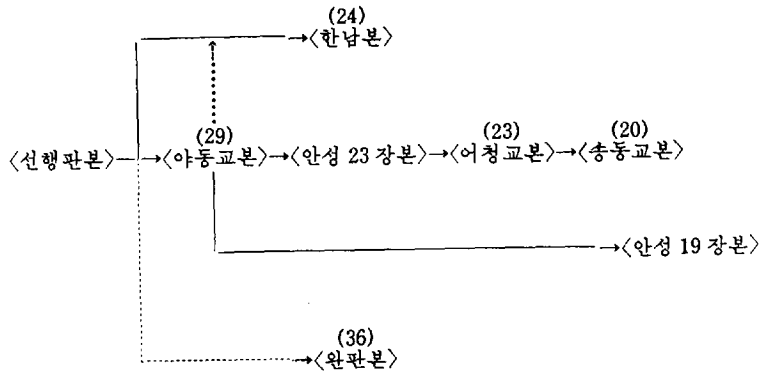
<한남본>은 개안거부삼화 및 정조일천석의 요구가 없으며 길동의 죽음이 예사롭게 처리되어 있고, 후반부가 심하게 축약되어 있다.

<완판본>은 첫대목에서 홍모의 국가공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며, 길동에 대한 태몽 역시 화려하고 길게 서술되어 있다. 또 길동의 함경감영습격의 목적이 인군을 보좌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었으며, 대부인 유씨의 죽음이 길동이 죽은 후로 처리되어 있고, 무상가 대신에 진취적 기상의 노래가 대신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본 역시 길동의 죽음이 백일승천으로 되어 있다.

<안성 19 장본>은 길동의 병조판서제수요구대목이 없으며, 개안거부삼화 역시 없다. 그러나 <한남본>과는 달리 군담적 부분에서 심한 축약은 보이지 않으며, 특이하게 울도국 수립대목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볼 때 방각본 <홍길동전>의 주요 이본계열은 <야동교본>系, <한남본> <완판본> <안성 19 장본>의 4 갈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原型은 다른 자료의 발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으나 현존 방각본 자료 중에서는 <야동교본>이 가장 앞선 시기에 위치하는 판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방각본 소설의 이본출현은 후대로 갈수록 각 면의 행수가 늘어나면서 장수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는 장수 표시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